

朴氏傳과 丙亂

鄭 相 珍*

I. 序 論

朴氏傳은, 작품의 가치 문제는 우선 차치하고라도 丙亂을 배경으로 한 몇몇 안되는 敍事物 중의 하나이자 전란 수습의 작품 내적 주체가 여성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은 작품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작품이 어느 歷史軍談類와는 달리 병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다루면서도 주인공을 허구적 인물로 설정한 점이다. 즉, 丙亂의 始末은 實史를 별다른 굴절 없이 수용하면서 그 수습의 주체만을 허구적인 인물로 하여 結構한 작품이다. 그러다 보니 구조상 통일성의 결여까지 운위되기도 하였다.

朴氏傳은 원래 前·後가 별개의 작품이었던 것(전반부는 朴氏傳, 후반부는 李時白傳)이 부자연스럽게 결합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주인공 박씨도 同名異人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라든가, 작품적 의미 파악에서도 여성주인공이나 병란 등 어느 한 쪽에 치우친 기왕의 논의들은 앞의 지적과 유관하다 하겠다.

텍스트의 구성상 특징인 통일성의 일탈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작품은 그 자체로써 독자적 구조체임을 전제하고, 이 작품의 意味指向을 여성의 우월성 확보, 병란의 설분 등으로 운위하고 있는 기왕의 주장을 극복해 보려는 것이 발표자의 의도이다.

따라서 본고의 논의의 核은 實史를 별다른 굴절 없이 수용하면서 왜 주인공만을 굳이 허구적 인물로 내세웠으며, 나아가서는 이를 통하여 무엇을 구현하려고 하였느냐 하는 점에 귀착된다. 허구적 인물인 박씨와 역사적 인물인

*釜山外大 教授

이시백과의 결연, 병란에 대한 박씨의 대응 자세, 병란 수습의 역사적 주체인 執權層과 박씨와의 관계 등의 추적을 통하여 제기된 의문을 해명해 보고자 한다.

II. 身分格上과 現實的 位相確保

朴氏傳의 전반부는 李時白과 박씨의 結緣 및 박씨의 脫殼으로 결구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바는 이시백이 역사적·귀족적 인물인데 반하여 박씨는 身元이 불분명한 허구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은 박씨의 歸屬身分 및 이시백과의 결연이 갖는 소설적 의미이다.

1. 박씨가 작품의 주인공인데도 그의 신원 및 출생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는 점, 그의 부친인 朴處士는 금강산에 은거하면서 속세와 단절된 삶을 누리는 인물로 신분이 철저히 베일에 가려 있을 뿐더러 그의 존재를 아무도 모르는 초월적 능력을 지닌 道士라는 점, 이른바 道士(僧)는 사대부 의식과는 乖離된 민중적 인물이자 민중 의식에 의하여 創出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박씨의 귀족신분은 민중 계층이라 판단된다.

2. 민중적 인물이 상층 귀족과 婚姻한다는 것은 봉건적 신분 사회에서 常道에 어긋날뿐더러 그 蓋然性도 찾기 힘든 일이다. 時白의 가족 및 姻戚들의 저항이나 婚禮가 지극히 약식으로 행하여지는 서사적 내용은 이런 사정의 일단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다만 嫗父(李貴)의 독단적 결단에 의하여 혼사가 성사된 것으로, 이는 시부의 智人之鑑에 의해서이다. 결국 박씨는 신분의 미천함에도 불구하고 時白과 결혼함으로써 사대부 계층에 편입되는 곧 신분이 格上된 셈이다.

3. 朴氏가 士大夫家の 부녀로 신분이 격상되었다고 할지라도 이에 걸맞은 현실적 위상이나 가치가 확보된 것은 아니다. 그는 醜貌로 인하여 시부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박씨의 추모는 天定之數라는 사고와 결부되어 있으나 내면은 신이적 인물임의 시현이자 시부의 지감모티브와도 관련되는 것으로, 朝服짓기, 養馬, 硯滴獲得등의 모티브는 이러한 박씨의 인물됨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4. 신분에 상응하는 현실적 위상과 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소설적 장치가 다름아닌 脫殼變身이다. 탈각을 통하여 박씨는 명실상부한 사대부 부녀자로서의 위치를 확보하였기 때문이다. 변신은 단순한 형태의 전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충격에 상응하는 상황의 전환도 병행한다. 사대부의 며느리이면서도 추물 때문에 받았던 고통과 모멸심이 한꺼번에 해소되는, 박씨로서는 중대한 생의 전환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상에서와 같이 도사의 딸이라는 미천한 신분에 불과한 박씨는 家長(李貴)의 인정과 비호에 의하여 귀족적 신분으로 격상되었고 탈각을 통하여 신분적 기반이 확고히 되었다. 박씨를 영웅으로 상정하였을 때, 이른바 民衆의 英雄에서 貴族的 英雄化한 셈이다. 이러한 변모는 단순한 신분상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지 실현을 위한 現實의 地位確保라는 측면에 보다 진정한 의미가 있다. 후술하겠지만, 병란 수습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지위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씨는 이를 바탕으로 受動的·他律的인 自我를 能動的·自律的인 自我로 전환시켜 자기의 뜻을 마음껏 발휘하게 된다. 박씨의 결연 및 탈각으로 이어지는 전반부 구조는 앞으로 전개될 역사적 현장의 주체로서의 존재 가치 및 위상 확보에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달리 말하면 주인공 박씨의 의지 구현의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III. 丙亂對應과 狀況認識

朴氏傳에서 후반부의 중심 내용은 丙亂과 그 收拾이다. 여기서 우선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병란의 結末은 역사적 사실과 대차가 없으면서 그 수습의 주체는 역사적 실체가 아닌 허구적 인물이라는 사실인데, 서사 진행 과정을 통하여 이 점이 갖는 의미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1) 병란으로 인하여 국왕이 산성으로 피신하고 호적의 요구대로 항서를 썼는가 하면, 세자 대군이 인질로 잡혀가는 등 치욕적인 수모를 겪은 것이 역사적 사실이자 소설의 내용이다. 다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박씨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는 것만 實史와 다를 뿐이다. 이를테면 실사를 그대로 소설화 하면서 그 주체 및 그의 행위에 따른 세부 사건의 내용만 바꾼 셈이다. 박씨는

신통력을 지닌 인물로 국가적 환란을 예지하고 避禍堂을 지었는가 하면, 호군의 來侵은 물론 그 경로까지 알고 있었다. 따라서 그는 전쟁을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고, 더우기 胡軍 정도는 쉽게 퇴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이다. 그럼에도 그는 국왕에게 항서를 쓰게 하였고, 호군들이 세자등 인질을 데리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끔 주선까지 한다. 이를테면 현실적 패배를 인정한 셈이다.

2) 林慶業은 明·淸의 교체기에 排淸崇淸의 대표적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소설상의 사정은 다르다. 그가 의주부윤으로 병란시 적의 길목을 지켰다는 것, 金自点的 모해를 받아 형문의 상처로 죽었다는 내용은 실사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林慶業이 호국을 침략한 可達의 퇴치로 호왕의 환심을 샀다는 것, 설욕의 기회가 있었던 데도 박씨의 편지에 의하여 호군을 그대로 돌려보낸 일, 그리고 세자 대군을 환국시키기 위해 호국에 가서 호왕의 환대를 받은 일 등은 허구이다. 이러한 소설의 내용을 감안할 때, 그를 排淸意識의 소유자로 보기는 어렵다.

3) 호적에 대한 박씨의 적개심이 그런대로 표출된 것은 龍忽大와 龍骨大의 대결에서이다. 龍忽大는 박씨의 미모를 탐하다가 죽임을 당하는가 하면, 龍骨大는 아우의 원수를 갚으려다가 박씨와 계화의 도술 앞에 굴복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 부분은 朴氏傳의 의미를 호적에 대한 적개심의 구현이라고 하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대결은 국가적인 것이 아닌, 지극히 사적인 것에 불과하며, 박씨가 이들을 응징하였다고 하여 국가의 운명이 반전된 것도 아니고, 더우기 龍忽大는 허구적 인물이며 龍骨大의 응징은 국왕이 항서를 쓴 이후의 일이다. 따라서 박씨의 이같은 활약상은 민족적 치욕의 현실 앞에 울분의 일단을 표출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허구적·정신적 승리의 소설적 표출로 볼 수 없다.

이상의 내용을 감안 할 때, 박씨전에 표출된 병란에 대한 대응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으로, 國力の 열세를 깨닫고 승산 없는 전쟁은 백성의 고충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당대 민중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병란 당시 대신들 간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主戰과 主和이나, 기본적인 國論은 主戰 곧 斥和이며 이를 기초로 후에 北伐論까지 제기된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적·명분적인 것으로 집권 사대부들의 생각이니 백성들의

생각은 아니다. 호적의 집중적인 공세로 성중이 아수라장이 되고 국왕은 和・戰의 택일에서 방황하자 박씨가 나타나 피할 수 없는 국운임을 들어 항서를 쓰도록 하면서 이것만이 나라를 살릴 길임을 주청한 것은 당시 백성들의 무언의 생각을 대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박씨라는 영웅적 여인이 병란 수습의 주체로 등장하였지만, 그의 영웅으로서의 존재 의미가 호적의 퇴치 그 자체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박씨가 진정한 구국의 영웅이라면 병란을 실질적인 승리로 장식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패배를 인정하자는 주장이다. 이상(명분)과 현실에서 후자를 택하였고, 이것이 전란의 상처를 극소화하는 길임을 박씨는 인식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박씨는 현실적 패배를 허구적 승리로 장식한 구국의 영웅도 아니다.

IV. 執權層의 實相과 그 批判

후반부 구조에서 제기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역사적 실체인 집권층 인물들과 박씨와의 관계이다. 병란의 실질적 담당자는 실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위정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병란이 발발하자 대응력을 잃은 채 모든 것을 박씨에게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구체적 실상을 살핀 다음에 그 의미를 고구해 보기도 한다.

1) 國王의 山城動駕는 박씨의 시비인 계화에 의해서, 그리고 降書는 박씨가 직접 주청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국왕이라는 至尊의 인물이 일개 賤婢나 여인의 進言에 전후 사정도 고려치 않고 따른다는 것은 국정 책임자로서의 무력함을 그대로 노정한 것이다. 게다가 영의정과 좌의정이 산성동가를 반대하다가 계화의 一喝에 그대로 굴복한다는 내용은 현실을 무시하고 명분과 권력욕의 추구에만 급급한 당시 집권층 인물들의 실상과 그에 대한 응징을 보인 것이라 하겠다.

2) 李時白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實史에서의 李時白은 병조판서로 산성의 保衛에 나름의 힘을 쏟은 인물이다. 그러나 소설에서의 이시백은 그 사정이 다르다. 박씨의 도움에 의하여 과거에 장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박씨가 없었다면 자객에 의하여 살해되었을 운명이다. 게다가 호란시에도 주체적인 역

량은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박씨의 말을 국왕에게 진언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 박씨의 의지 여하에 따라 이시백은 얼마든지 영웅화될 수 있는 인물이다. 즉 이시백에게 신통력을 부여하여 그로 하여금 자기 못지 않는 영웅적 인물로 만들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박씨의 남편이기 이전에 집권사대부층의 인물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민중적 인물이 아니라는 데 기인한다.

3) 계화라는 인물의 등장이다. 그는 박씨의 대행자이자 실질적인 행동가인 셈인데 신분은 賤婢이다. 한낱 천비의 신분에 불과한 존재가 국정에 참여하고 심지어 국왕에게 주청까지 한다는 것은 지나친 허구이다. 그러나 병란으로 인한 민중들의 참상 및 집권층의 무능한 모습을 감안한다면 그 개연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이상의 내용에서처럼, 병란을 수습해야 될 역사적 실체들이 박씨와 계화에 의하여 좌우되게끔 결구한 작품의 내용은 위정자에 대한 민중층의 인식과 접맥되어 있다고 본다. 곧 위정자들의 사고와 행위에 대한 민중층의 불신에 기인된다. 병란의 발발도 이들의 무능과 정치력 부재에서 비롯됨은 물론이거니와, 전란의 와중 및 그 처리 과정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권력 암투만을 일삼았던 것이 당시대 위정자의 실상이다. 만약 그대로 두었을 경우 당하는 쪽을 백성이다. 박씨와 계화라는 허구적 인물이 등장한 주된 의미가 여기에 있다. 곧 이들을 통하여 병란도 수습하면서 위정자들의 무능을 露呈하자는 것이다. 박씨전의 궁극적 의미 지향은 이런 점에서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V. 作品의 意味指向과 形成動因

朴氏傳의 作品의 意味指向 곧 主題는 여러 각도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女性의 現實參與를 통한 새로운 女性 英雄像 創造라는 점과, 兵亂時의 屈辱을 精神의으로 克服하려는 意圖 등이 그것이다. 전자가 박씨전의 갈등구조의 핵을 남성 대 여성의 측면에서 본 견해이라면, 후자는 그것을 국가 대 국가의 측면에서 도출된 견해로 보아진다. 그러나 이 두 주장은, 胡敵에 대한 敵愾心을 여성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을 통하여 설분

함으로써 民族意識을 鼓吹한 作品이라는 점에서 함께 묶여질 수도 있다.

이러한 기왕의 견해에 대한 발표자의 懷疑가 이 글의 執筆意圖임을 다시 전제하고 朴氏傳의 窮極的 意味指向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도출하는데 우선 注目・留意해야 할 사항은 박씨의 귀속신분이 평민(민중)층이라는 점, 현실적 패배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敵將의 웅장은 국왕이 항서를 쓴 이후라는 점, 병란 후 淸과 和平을 유지하였다는 점, 국왕을 비롯한 집권층의 인물들이 병란에 대한 대응력을 상실하였다는 점, 병란 수습의 주요 인물로 시비인 계화가 등장한 점 등이다. 이러한 서사적 내용에서 우선 몇 가지의 의미를 읽을 수 있는데, 곧 丙亂의 발발 및 敗戰의 근인은 집권사대부층의 무능에 있으며 나아가 아무런 현실적 힘도 없으면서 명분만으로 대처하려는 이들을 믿을 수 없다는 것, 국력의 열세를 인정하고 이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자는 것, 이는 민중층의 시각이자 인식이며 여기에 걸맞은 인물로 등장한 것이 다름 아닌 박씨와 계화라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로 볼 때, 박씨전의 궁극적 지향을 전쟁을 매개로 한 국가간의 갈등이나 남성 대 여성의 갈등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위정자와 민중층간의 갈등 내지 민중들의 對執權層觀에서 찾아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병란과 그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위정자들의 무능과 그 작태는 호군의 跋扈 못지 않게 민중들의 울분의 대상이 되었다고 본다. 달리 말하면, 울분의 실질적 대상은 호군이 아니라 위정자들이다. 따라서 허구적・민중적 인물을 내세워 호적에 대한 설분의 형식을 취하면서 內面은 爲政者의 無能으로 인하여 苦痛받고 있는 民衆들의 抵抗意識을 迂迴적으로 露呈・批判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朴氏傳의 궁극적 의미 지향이라 생각된다.

朴氏傳의 이러한 지향은 이 작품의 形成動因과도 결부된다.

朴氏傳의 형성동인에 대해서 여러 주장이 있으나, 대표적인 것이 丙亂과의 관계에서 보는 견해이다. 즉 병란의 참상이 이 작품 창작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朴氏傳의 주제를 병란 그 자체에서 찾을 경우 설득력을 가진다. 그러나 그것을 민중들의 對執權層觀과 결부할 경우에는 그 사정이 다르다.

병란 중 對淸政策에서 집권사대부간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斥和와

主和라는 것은 전술한 바 있다. 이로 인하여 국론이 분열되고 결국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민족적 치욕을 당하였다. 그럼에도 역시 國論은 斥和論이었고 戰後에는 北伐論까지 제기되었는가 하면, 이것이 실현불가능하자 對明義理論이 강조되면서 尊周論이 형성되어 조선조 말기까지 이어져 왔다.

그런데 兩亂克服의 논리로 제기되었던 북벌론이나 존주론은 집권사대부층의 성리학적 세계관에 입각한 명분론에 불과하며, 도리어 淸은 北伐의 대상이 아니라 北學의 대상이어야 했다. 이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실학자를 비롯한 진보적 지식층이나 일부 개화한 민중들의 생각이자 願望이다. 그럼에도 현실과 괴리된 명분만 앞세우고, 더우기 그로 인해 치열한 이론 투쟁으로 파쟁만 일삼고 있는 집권사대부층의 행위는 진보적 지식인이나 민중에게 원성의 대상이 됨에 충분하다고 본다. 이러한 양자간의 淸에 대한 인식의 차이 및 그에 따른 소설담당층의 집권사대부에 대한 반감 등이 박씨전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된다.